

순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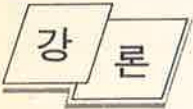
연중 제 32주일

제 1독서 : 1열왕 17, 10-16

제 2독서 : 히브 9, 24-28

복 음 : 마르 12, 38-44

“저 과부는 구자이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마르 12, 44b)



사렘다의 여인



김동준 신부 / 나바위 천주교회

구원의 말씀을 받은 신앙인이라면 일상 안에서 실천적 삶의 모습은 당연히 나눔, 섬김, 친교로 드러나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친다. 실제로 이 삶이 없다면 신앙인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지탄의 대상 이 외에 무엇이겠는가?

덕(德)이란 좋은 습관을 말한다.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진 삶이기에 스스로가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준다. 그러나 부덕한 사람은 한 순간의 다짐이나 결심 혹은 선언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주님은 스스로 나누어진 빵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으며, 십자가로 화해와 친교를 이루셨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있을 뿐 실천이 없다. 따라서 길들여진 삶이 아니기에 언제까지나 어색하고 힘들고 어정쩡하다. 나눔

에 게으르고 무심한 사람, 섬김을 받는 것이 마치 성공과 승리의 삶이려니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비워지 않으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친교)를 소망하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오늘 1독서의 사렘다 여인은 죽음에 봉착한 가난 속에서도 나눔과 섬김과 친교를 실천한다. 그 삶의 결과로 하느님의 자비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이 현실로 나타난다. 오늘 복음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같은 뜻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미리 계산을 하고, 실천이 없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느님이 어떻게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는 지를 체험할 길이 없다. 이것이 오늘에 나의 모습이며 문제점이다. 그리스도인은 나누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부해지고, 섬기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곧 승리이며, 친교의 삶은 고통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삶이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교는 역설(逆說)의 종교이다.

예수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 같이 “악하고 절개없는 이 세상”(마태 16,4)에서 “홍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루카 21,34),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그렇습니다 아버지!”(마태오 11,26).



여 명

부실 공화국

문치상(비오)

때 : 현재

장소 : 어느 막걸리집

이현령 : 이제 대형 물사건은 끝났다는 게야.

비현령 : 그게 무슨 소리당가?

이현령 : 서해 웨리호 침몰사고에 이어 성수대교 그리고 충주호 유람선 사건이 났으니 험칠 영이 3번이니가 끝난 게지.

비현령 : 제발 그랬으면 좋으련만. 잇단 참사에 이젠 불감증까지 생겼지. 오죽하면 축소 내지 누장보고라는 유언비어가 나돌겠는가!

이현령 : 뭐라더라 성수대교에서도 32명 이상 숨졌는데 시신 발굴작업을 늦췄고.

비현령 : 지도자의 사과방송 도중에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발생하니가 구조대나 소방차 출동마저 지연됐다는 등, 거기다 극성스럽게 파고드는 신문 방송의 보도방향을 바꾸기 위해 43년 만에 북한을 탈출한 조창호 씨 문제를 이례적으로 국민 전환용으로 내놓았다는 게야.

이현령 : 구태의연한 작태에 아직도 뉘빠진 놈들이 있는 한 유언비어는 눈덩이가 되고 개혁은 물건너 간 거지 뭐.

비현령 : 사고가 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담화문. 그것도 방송 2시간 전에 녹화를 했다는데 그 시간에 충주호 사건은 발생했고 그렇다면 생방송으로 방향을 바꿔 그 사고도 아울러 사과 속에 포함됐어야 옳지. 그렇지 못한 걸 보면 그분 주위를 감싸고 있는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현령 : 참모 좋아하시네. 지도자가 사고수습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일부 참모의 입김으로 서울 시장이 경질됐지만 부적격자라는 거야.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성수대교 준공 때는 서울시 계장인가 과장을 했고 그 동안 부실공사와 연결된 종합건설 본부장, 지하철 건설 본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4월 동부건설 사업소가 성수대교 위험성을 보고할 당시는 부시장이었다더만.

이현령 : 어쩐지 학연에 의한 정실인사사고들 쑥덕 대더라고. 그 모양이니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책임을 안질 수밖에. 만약 그들이 전부 인이면 어졌을까?

비현령 : 책임? 오히려 과거지사라며 전가하고 오리발에 네 탓으로 돌리는 판에.

이현령 : 관리능력이 없으면 아예 인수를 거절할 일이지.

비현령 : 전시행정에 가시적 효과에 치중한 업보겠지만 어느 한 구석 믿을 곳이 없으니 불안해서 살 겠나.

이현령 : 제발 대형 사고 뒤에 발표된 종합대책만이라도 실천이 돼야 할텐데 곧 망각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 용두사미가 되니까 이제 우리 문민정부 1년 8개월 동안의 대형 사고나 한 번 기억해 보세.

비현령 : (호주머니에서 최근 대형 사고 일지를 꺼내 보였다)

93. 3.28	부산 북구	무궁화호 열차사고 78명 사망
93. 6.10	경기 연천	예비군부대 폭발사고 19명 사망
93. 6.14	서울 송파	영화촬영 헬기추락 7명 사망
93. 7.26	전남 해남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66명 사망
93. 8.12	경북 성주	해군헬기 추락 10명 사망
93.10.10	전북 부안	서해 웨리호 침몰 291명 사망
94. 3. 3	경기 용인	공군헬기 추락 6명 사망
94. 8.17	서울 중구	룸싸롱 화재 14명 사망
94.10.21	서울 성동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94.10.24	충북 단양	충주호유람선 화재 30명 사망

숲정이 산책



목에 침갈을 두른 나라들...

교회 묘지를 생각한다



범석규 신부 / 교회묘지 조성위원장

교회 전례력은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죽음을 묵상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나는 위령성월을 맞으면서 신자분들에게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교우들 중 대부분은 죽은 다음에 자기 자녀들로부터 미사와 기도를 받아 하느님께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왜 죽어서 연옥에 갔다가 하느님께 가려고 하는지. 살아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웃을 도와 주고 선한 일을 해서 하느님께 직접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은 후에 자손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자손들도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지, 죽은 다음에 화려하게 묘지를 꾸민다고,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죽은자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부, 권력,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옛날에는 산에 묘지를 만들면 나무로 표시하곤 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 후손들이 묘지를 잊어버리면 묘지는 자연히 산야로 변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돌 깎는 기술이 발달해 묘를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꾸미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침식될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죽은 땅이 되고 만다. 땅은 계속 환원되어야 한다. 환원되지 않고 계속 무덤만 늘어난다면 국토는 묘지로 뒤덮이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나 죽어 가고, 문힐 곳은 한정되어 있어, 국가정책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교회도 묘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가 군산, 이리, 전주 등에 묘지를 위한 땅을 마련했지만 토지 이용 계획과 주민들의 반대로 묘지 허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묘지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 보아야 한다. 10년 전 유럽에 갔을 때 나는 그들의 묘지를 관심있게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시신을 성령이 머물던 곳으로 여겨 소중하게 다루고 성당 밑에나 성당 마당에 모시고, 자주 찾아가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시신을 보면 닭살이라도 돋듯 무서워하고 싫어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 속에 묻어 두고 1년에 한두 번 찾아 뵙는다. 요즘은 교통이 복잡해서 한 번이라도 찾아 뵙으려면 얼마나 힘든가.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도 이제 묘지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 속에 묻어 두지 말고, 우리 삶의 주변에 모시면 어떨까? 우리만 좋은 아파트에 살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멋진 유택을 아파트로 지어 드리면 어떨까? 소리개재에 있는 묘지 중에 15년 정도된 시신은 이미 탈골이 다 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 유골을 거두어 납골당에 모신다면 묘지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 동안 묘지문제로 각 본당 애령회장과 묘지담당 신부님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러나 지금도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에 교회 묘지 조성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소임을 받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타 교구도 찾아가 보았지만, 어느 교구도 묘지문제를 만족하게 해결할 만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오래 전부터 묘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기에 내 소명인 줄 알고, 새로운 묘지를 형성할 수 있는 땅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시도해 보겠다. 어쩌면 이 사명이 나에게 마지막 소임이 될 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 누가 보아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나도 이곳에 묻히고 싶다'고 느껴지는 그런 유택을 짓고 싶은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줄을 생각하라." 우리 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 위해 진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

특집-위령성월을 맞으며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나의 것 내일은

11월2일은 위령의 날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위령의 날과 연관시켜 11월을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약하며 기도하는 달(위령성월)로 특별히 정했다.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위령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법에 따른 임종과 상례법절, 그리고 상가방문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본다.

◆ 임종 전에 해야 할 일

-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성서나 기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한다.
-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힌다.
- 유언을 받는다.
-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은 임종자가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으로 준 성사의 하나이다.
-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가족들은 임종자에게 입맞춤을 하든지 손을 잡아 줌으로써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일치로 표현한다.
- “예수 마리아여, 나를 구하소서!” 혹은 “예수 마리아!”를 부르게 한다. 못 부르면 임종자가 들을 수 있도록 곁에서 대신 부른다.
- 손을 잡아 성호를 긋게 한다. 가족들이 차례로 이마에 십자표를 그어 주고 십자고상이나 평소에 쓰던 묵주를 손에 쥐어 준다.
- 운명하면 양손을 깎지 끼워 가슴 위에 얹고 고상이나 묵주를 들려 준 다음 얇은 이불로 하반신을 덮는다. 완전히 운명한 것을 확인한 후에 곡을 하여 슬픔을 표시할 수 있다.
- 고인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주의 자비하심을 비는 기도(임종기도)를 드린다.
- 상에 흰 보나 종이를 덮고 중앙에 십자고상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성수그릇과 채를 갖추어 놓는다. 십자가 뒤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사진 아래 고인의 성과 세례명을 써 붙인다.
- 별세하였다는 사실을 본당신부에게 알린다. 알릴 때 보고사항은 운명일시 및 장소, 병명, 성명 및 세례명 등이다.



◆ 상례법절

한 인간의 마지막 길을 엄숙하고 절차있는 예로써 장식함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예절은 그 시대의 환경과 사고방식에 맞아야 하며 모두에게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떠나는 고인의 가시는 길에 조금도 욕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들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고인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수가 있으니, 본당 에 평화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 북침(北寢: 운명 후에 머리를 북쪽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에 관계없이 방의 구조에 따라 편리하게 모신다.
- 고복(卓復: 招魂 - 혼을 다시 불러 몸에 들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 발상(發喪: 상을 알리는 뜻으로 한쪽 팔을 뻗 채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풀어 곡하는 것)은 표준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평상복을 입고, 기중(忌中, 喪中)이라고 써서 문 밖에 붙이고 초롱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 한다.
- 전(奠: 생시와 같이 밥상과 세숫대야 등을 시신 앞에 두는 것)은 유족의 정성을 표시하는 꽃으로 대신한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역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조립식 건축
한국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김해선(레미지오)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무지개 광고
간판, 현수막, 상패, 기념품
김창식(스테파노)
☎(0652)252-0207
FAX (0652)252-0208

죽음 의 것”

- 염습(殮襲: 시신을 깨끗이 씻긴 후 귀와 코를 막고 수의를 입히는 것)은 운명 후 적어도 6시간 후에 한다.
- 설전(設奠: 상을 당하고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은 위령기도(연도) 대신한다.
- 반함(飯含: 시신의 입안에 구슬과 쌀을 넣는 것)은 하지 않는다.
- 소렴, 대렴(小殮, 大殮: 수의를 입힌 다음, 시신을 중형으로 묶는 것)은 손발이 흩어지지 않게만 한다.
- 입관(入棺)은 운명 후 적어도 24시간 후에 해야 한다.

이 외 발인, 운구, 장례미사, 하관, 반곡, 우제 등은 본당 애령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한다. 또한 추도 및 제사예절은 일반관례에 따라 해도 무방하지만 지나친 허례의식은 삼가한다.

◆ 상가방문

상가방문은 고인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 그를 전송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죽은 이와 일치하는 뜻을 드러내며 유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문상하는 자세〉

- 부음(訃音)을 듣는 즉시 단정한 옷차림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가를 찾아야 한다.
- 먼저 시체 앞에 이르면 시체에 존경의 예(절)를 드린다. 성수를 뿌리며 “주여,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소서. 아멘.” 혹은 “주여 ○○을 당신 나라에 받아들이소서. 아멘”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갔으면 대표자가 성수를 뿌리고 다른 이들은 “아멘”으로 동참한다.
- 분향(焚香)한다.
- 위령기도(연도)를 드린다.

- 위령기도 후에 다시 성수를 뿌린다. 유족이 먼저 뿌리고 조객들이 뒤따라 한다.
-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 주의 사항

- 1) 되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이며 유족들의 슬픔을 자극하는 말을 삼가한다.
- 2) 시체를 모신 방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거나 상례에 관계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 3) 밤샘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 오래 지체하여 유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 4) 일하는 사람들은 조객이 위령기도를 시작하면 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닌 한 일손을 놓고 소리를 맞추어 함께 기도한다.
- 5) 조의금, 상가에 쓰일 물품, 기도, 굿은 일 등 서로 돕는 것은 애덕이 요구하는 것이나 상례절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6) 유족에게 봉사하려 간 사람이 필요 이상의 귀찮음을 주는 것은 애덕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다. 유족들의 기분이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1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 한 달 동안 미사참례와 기도, 묘지방문은 주님께서 죽은 이들에게 은전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참배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날마다 한 번씩 연옥 영혼에게 양보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날에는 부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십이 (1106) 김병오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조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까지, 12월배달)
 ·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제4차 영성강연회
 주제: 하느님의 사랑
 (부제-성이나시오의 삼위일체론)
 강사: 파울 임호프(독일 예수회 신부)
 통역: 이범배 신부(대전교구)
 대상: 일반신자, 수도자, 성직자
 장소: 서강대 이나시오관 소강당
 일시: 11월12일~14일
 문의: (02)705-8230, 8666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조주장 한의원
 비만클리닉 개설
 (스트레스성 피로회복 및 통증치료)
 조주장(이나시오)
 차숙(글라라)
 코야건너편(중앙시장 입구)
 ☎ 254-6382

40년 전통
성심당 한약방
 이 상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재(베네딕도)
 ☎ 75-0550

뿌리를 찾아서 47

금암동 성당

—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 —

우뚝 솟아 있는 성전.

금암동 성당의 설정은 모(母) 본당인 중앙 성당의 '중앙 성당 설정 제 25주년 기념성당 신축' 발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앙 성당은 성당신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구의 승인을 얻고 '83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하여 그 이듬해인 '85년 1월에 준공식을 가졌다. 성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된 뒤 그 해 2월 중앙 성당에서 분가하여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오현택(가시미로)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맞이한 금암동 성당은 주임 신부의 지도로 성당의 본관건물과 별관건물 등의 부속시설을 완공하고, 선교를 위한 단체를 조직하는 등의 사목 선교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85년 5월 성가소비녀회의 분원이 설치되어 신자들

과 한마음으로 예비자 인도와 냉담자 회두에 전력하며 본당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동정성모회 분원으로 바뀌어 본당 사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제 3대 김영신(바오로) 주임신부와 김진철(빈첸시오) 보좌신부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암동 성당은 초대교회 신자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12개 구역, 117개 반으로 조직하여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예비자 교리는 수녀와 평신도 교사회에서 맡아 하고 있으며, 전신자의 1인 1 예비자 입교 권면운동 등을 벌이며 선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바르톨로메오 정문호(축일 9월20일)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금암



성당은 신자 재교육, 신심운동 그리고 교회운동 등을 통하여 신앙을 다지는 한편, 대사회활동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간의 상호 경제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명상의 자리

그 날을...



찬란한 영광이 조용히 땅 위에 내리면
저는 겸허하게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피조물은 태어나야 할 때와
피어야 할 때와
사라져야 할 때를 압니다.
오, 나의 친구여
그대도 태어날 때와
피어날 때와
사라질 때를 아십니까?

〈그대를 찾아나서면 중에서〉

95학년도 전주교구 가톨릭 유치원 원아 모집

모집기간 : 94년 11월 21일~12월 3일 문의-지역 유치원

자 격 : 신체건강한 남여 어린이 만3세~95학년 취학 전 아동

- | | | | |
|---------------------|---------------------|--------------------|---------------------|
| 진안 소화유치원 ☎ 33-2293 | 전주 성심유치원 ☎ 84-8347 | 금마 성모유치원 ☎ 53-7157 | 무주 소화유치원 ☎ 322-2398 |
| 김제 성모유치원 ☎ 546-3788 | 군산 성심유치원 ☎ 43-2454 | 남원 소화유치원 ☎ 33-4005 | 원평 성모유치원 ☎ 43-4236 |
| 군산 해성유치원 ☎ 445-8445 | 전주 진복유치원 ☎ 252-0384 | 부안 성심유치원 ☎ 84-1004 | 고창 셋별유치원 ☎ 64-3529 |
| 전주 성체유치원 ☎ 84-8408 | 이리 성심유치원 ☎ 855-1028 | 합열 어린이집 ☎ 861-2966 | |

교구소식

❖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 때 : 11월13일
 · 곳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축! 견진**
 · 때 : 11월13일(일) 오전10시30분
 · 곳 : 복자 성당

❖ **천호 피정 안내**
 · 때 : 11월10일(목)
 · 주제 : 그리스도인의 희망
 · 감사 : 이승현 신부

· 때 : 11월12일~13일
 · 주제 : 그리스도인의 죽음
 · 감사 : 김정남 신부
 · 문의 : 73-6600

❖ **사랑의 다리 후원회**
 · 때 : 11월7일(월) 오전9시
 · 곳 : 치명자산 성당
 · 지도 : 범석규 신부
 · 문의 : 84-5290

❖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때 : 11월7일(월) 오후7시
 · 곳 : 가톨릭센터

❖ **중·고 교리교사 성탄연수**
 · 때 : 11월12일~13일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에·신 월례모임**
 · 때 : 11월13일(일) 오후1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 **송천 성당 대건성가대 제2회 발표회**
 · 때 : 11월9일(수) 오후7시30분
 · 곳 : 전북 예술회관

❖ **수녀 연합회**
 · 때 : 11월8일 오전10시
 · 곳 : 중앙 성당

❖ **J.O.C 추모미사**
 · 때 : 11월12일(토)
 · 곳 : 서울 종로 성당
 · 문의 : (0652) 87-2577

❖ **축! 영명**
 · 10일(성례오) 박종충 신부님

성소모임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 때 : 11월13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3) 842-4132

❖ **거룩한 말씀회**
 · 때 : 11월13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84-2276

■ 위령성월에 권해드리는 책 ■

· **소중한 추억 나의 어머니**
 H.뉴엔/성찬성
 1,200원/성바오로 딸
 은유하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참혹한 고통으로 죽으셨다. 그러나 저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 사랑의 진리를 깨달으며 의문에서 점차 벗어난다.

· **믿음 희망 사랑**
 G.알베로네/표동자
 900원/성바오로 딸
 하느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은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초석을 이루는 이 세 가지 덕의 실천에 있어서 일상의 삶을 반성하게 해 주는 묵상서.

· **사랑이야기**
 이경식 지음
 2,300원/성바오로 딸
 암 전문의사인 저자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체험했던 실화들을 엮은 진료수기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한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쌀뜨물 처리는 이렇게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의 약 60%는 생활수.

그 중에서도 쌀뜨물의 양과 빈도가 가장 높다. 쌀 2컵을 씻는데는 3ℓ나 물이 사용되는데 이 오염된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되살리는 데는 300ℓ나 되는 목욕탕을 채울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날마다 많은 가정에서 이 정도의 쌀뜨물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강과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케 한다.

쌀뜨물은 비료가 되므로 정원이나 화분 등에 주면 일거양득이다.

또 한가지,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배수구에 그냥 흘려 보낸다면 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욕탕 330배분의 맑은 물이 필요하다.

이때는 헌 신문지나 못쓰는 천을 넣고 기름을 흡수시켜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경제적·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

성바오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슬라이드, CD 등 중앙성당 옆

☎ (0652)252-3398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

· 샴이랑 : 온몸, 샴푸, 린스 겸용
 · 천연샴 : 부엌용(아기샴, 맑은샴)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인기 주유소

가정에 탱크노리로 석유, 경유, 신속배달합니다.

※ 교우 기사 구합니다.

안 인 기(예로니모)
 김 순 선(수 산 나)

☎ 211-6114, 212-0176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임상병리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급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중 화(실 비 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알 파 회 관

단체손님 환영
 주차시설 완비

김 양 이(올리바)

덕진광장 비사벌 볼링장 앞

☎ 75-587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 32주일
- ◎ 11월은 위령성월: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
- 2. 반미사 안내: 중노13반-10일 후 3시
- 3. 빈첸시오의 날: 13일 장엄미사 후, 지하 교리실
* 일반 회원, 명예 회원들께서는 필히 참석바람.
- 4. 전입을 환영합니다.
· 이기화(실비아)-중노4반 ☎ 83-3670
- 5. 감사: 서정님(테레사) 현금바구니 기증, 감사합니다.
- 6. 8일(화)은 신부님 동창회 참석 관례로 어머니미사가 없고 말씀의 전례가 있음.
- 7. 다음주일(13일)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음
- 8. 축! 혼인: 13일 후 1시
신랑-정동철(안토니오) 신부-이현미
- 9. 모임: ①울뜨레아(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8일 전 11시)
③장우회(13일 장엄미사 후)
- 10. 금주 청소: 동진1,2반
차주 청소: 중노1,2반
- 지난주 봉헌금: 958,570원 □ 교무금: 1,694,000원
- 2차헌금: 388,68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영

- 1. 11월은 위령성월: 선영들을 위해 미사 봉헌합니다.
- 2. 다음주일(13일)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3. 축! 견진성사: 13일(주일) 10시 공식미사에 이병호 주교 집전
* 9시 학생미사 없습니다.
- 4. 성령채신목상회: 7일(월)~12일(토), 오후 7시30분
대상-전신자, 특히 견진성사 받으실 분
지도-전주교구 성령채신 봉사회
* 성령채신목상회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미사 있음
- 5. 구역방장 단합대회: 7일(월) 오전 10시 6. 안나회: 10일(수)
오전 10시 7. 자모회: 10시(수) 오전 10시 8. 여성분과회: 12일
(토) 오전 10시
- 9. 다음주일(13일) 모임 안내
요셉회-공식미사 후, 대건회 총회-공식미사 후
꾸리아-오후 2시, 청년회-13일 저녁미사 후
- 10. 축! 결혼: 신랑-안원호 마르코, 신부-최윤정 테오필라
일시-13일 12시30분, 주례-안복진 신부님
- 11. 성당 청소: 12일(토) 중거자의 모후, 천주의 성모Pr
- 12. 각 신실 단계 95년 사업계획서를 2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바람.
- 13. 은총시장이 열립니다: 11월20일(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초동부
주일학교에서 열립니다. 이 날 어린이들을 위한 물품(인형, 문
구류, 책...)을 기증받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초동부
교사 회합실로 접수바랍니다. □ 김사헌금: 60,000원
- 지난주 봉헌금: 709,600원 □ 교무금: 1,909,100원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11월은 위령성월
- 1. 호성동 성당 들기 2차헌금: 오늘
- 2.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금 회비 납부의 날
- 3.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안나회, 자모회-다음주일
- 4. 평신도 주일: 다음주일 2차헌금
- 5. 지속적인 성체조배: 매주 목 저녁미사 후~매주 금 저녁미사 전
- 6. 구역장 교육: 10일(목) 저녁미사 후 성당
- 7. 11월 구역모임:
· 11일(금) 서당, 내정, 공기, 백암, 어두, 수월, 마치
· 16일(수) 하신, 상신, 새장, 원신, 신흥, 의암
- 8. 성령세미나: 21일(월)~26일(토) 매일 저녁 7시~10시
봉사-전주교구 성령봉사회 9. 금주 청소: 순교자의 모후Pr 10.
차주 청소: 모든 성인의 모후Pr
- 11.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박귀철 ②김금자
봉헌-양주태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한동옥 ②송정자
봉헌-이수복씨 부부
- * 칠성사란?
혼인성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사이다.
- 지난주 봉헌금: 325,550원 □ 교무금: 280,000원
- 2차헌금: 136,160원

*** 서희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11월은 위령성월)
- 다음주일(13일)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음
- 1. 꾸리아: 11월6일(오늘) 오후 2시
- 2. 성심회: 11월8일(화) 오전 10시30분
- 3. 프란치스코 3회: 11월13일(다음주일) 오후 2시
- 4. 95년도 분과별 사업계획서를 각 분과장께서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바람.
- 5. 어머니 성심 1일 피정: 일시-11월15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서학동 성당
회비-3천원
- * 감사와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 같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 축! 혼인: 11월13일(일) 12시
신랑-김종필, 신부-전양숙(소니아)
장소-서학동 성당.
*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길 빕니다.
- 금주 전례: 해설-이주철(야고보)
독서-박종철(바로로) 남문회(세실리아)
- 차주 전례: 해설-전병구(비오)
독서-권희조(벤자민) 한남제(소니아)
- 지난주 봉헌금: 870,900원 □ 교무금: 1,621,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원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11월은 위령성월(연중 제32주일)
- 1. 금주: ①성소후원 회비 납부 주일
②계속관리라형제회-후 1시30분
③청년연합회 정기총회-후 8시
- 2. 사라회: 8일(화) 오전 11시
- 3. 돈보스교회: 9일(수) 오후 7시30분
- 4. 유아 세례: 12일(토) 오후 3시-11일까지 신청
- 5. 중·고동부 교리교사 성탄연수: 12일~13일 나바위 교육관
- 6. 본당신부님 사목방문: 반회장님 협력바랍니다.
- 7. 차주: ①평신도 주일 2차헌금 ②자모회-전 10시
③일치의모후 꾸리아-후 2시 ④사목회-후 8시
- 8. 성심유치원 원아 모임: 5세-30명, 7세-30명
원생 배부-12월1일 오전 10시
- 9. 정원 재조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경 총감독: 진일탁(요한)-소나무 기증
· 고급수종 기증: 정순복(아네스), 한규화(스테파노), 백종흠
(토마스)
· 성수대 수석 기증: 이금용(다두) 현금-유치원 자모(100만
원), 익명(100만원)
· 순교미서: 성화희, 글씨: 현유복 신부님
· 노력봉사: 남성단체 제회원
- 지난주 봉헌금: 1,973,3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우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하느님께서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 다음주(평신도 주일) 강론-강삼근(미카엘) 사목회장
- 1. 강삼근 사목회장 연일 임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2. 사목회 상임위원회: 8일(화) 저녁 8시
- 3. 반회장 연수회: 8일 전 10시30분 냉담 및 행방자 보고
- 4. 중·고 교리교사 성탄연수: 12일~13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 5. 가정 방문: 8일 6-3반 후 2시30분, 10일 7-1반 전 9시, 7-2반
후 2시30분, 11일 7-3반 전 9시
- 6. 주일미사 안내자: 금주-윤영이(요한) 김윤자(수산나) 왕의동
(라파엘) 윤명순(엘리사벳) 장성계(다비드) 김선숙(테레사)
차주-최병남(요한) 정준남(엘리사벳) 권학렬(안셀모) 송규순
(세마) 김도식(다미아노) 조영순(로사)
- 7. 전입을 환영합니다: 박순희(세실리아) 13-3반 지의환(시몬)
코오롱-2반 김선향(엠마) 코오롱-1반 이경숙(아네스) 1-1
반
- 8. 회의: 꾸리아-오늘 오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부녀회, 빈첸시오-9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11일 후 3시,
성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 성가대-다음주일 저녁미
사 후
- 9. 감식초 제조: 상하고 버려진 감을 모아서 가져 오십시오.
* 코오롱 APT로 입주하신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76,960원 □ 교무금: 1,718,000원